# 道교육청, 베트남과 상호존중·공생 교육교류 본격화

김대중 교육감, 현지 방문 MOU…'엄마나라 찾기' 등 추진 협력방안 모색…통역 위해 순천 등 이주가정 학생 3명 참여

전남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 비율 전 국 최고를 기록 중인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해 베트남과 상호존중·공생의 교 육교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교류단은 17 -22일 베트남을 방문해 호치민시교육 청,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반랑대학 교와 교육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방문은 역사·문화·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상호 존중과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함이다.

도교육청 교류단은 방문 첫 날 베트 남 현지 한국 기업인들과 만남의 시간 을 갖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인 재상 및 국제기술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우연 한-베 가족 협회 회장 및 기업인 대표들은 전남도 교육청 다문화 정책 및 베트남 대상 특 화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적 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엄마나라 찾기 프로젝트'는 다 문화 학생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 으킬 것이라며 베트남 기업체 방문 협 조와 더불어 진로의 꿈을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날에는 호치민의 묘소 및 생기를 방문했다. 호치민은 30여년 동안민족운동과 아시아 반식민지 운동을 해온 인물로서 오늘날까지 베트남 민족의



김대중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교류단은지난 17일 베트남 현지의 한국기업인들을 만나다문화정책 및 베트남 대상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기대주 도교유간은 "다동

김대중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에 있어 선행돼야 할 교육 중 하나가 상대 국 나라의 역사에 대한 존중 의식"이라 며 "서로 함께 배워 자긍심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부터는 유·초 IT 기반 교육 콘텐츠 기관인 DPM (Digital Power Media) 방문을 시작으로 각 기관과 본격적인 MOU를 진행하고 있다. 호치민시교육 청,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반랑대학 교와는 사전협의를 통해 도교육청 다문 화교육 정책의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 을 논의해왔다.

이번 베트남과의 교육 교류에는 베 트남어 통역을 위해 순천매산고 김윤 아 학생이,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진 도국악고 이진희·방아인 학생이 사절 단으로 참여했다. 3명의 학생은 베트 남, 태국 이주 배경 가정의 자녀들이 다

도교육청은 상호 존중과 공생을 위한 베트남 교류 추진을 통해 하반기에 100 여명의 다문화학생을 엄마나라 찾기 프 로젝트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 해 지자체, 대학, 교육지원청의 외국어 센터 등을 통해 활동 중심의 이중언어 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미래지향 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다이기자

# 市교육청, AI광주미래교육 정책 '집중'

설명회 개최···에듀테크 활용 사례 공유·방향성 제시

광주시교육청이 AI광주미래교육 정 책 추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각급 학교 교(원)감 및 교육전문직 38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 AI광주미래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2월 발표한 AI광주미

래교육의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을 설 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를 활용 한 융합 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AI 광주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시교육청은 AI광주미래교육이 추진 하는 주요 사업의 도입 배경 및 추진 현 황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상의 유의점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AI팩토리 구축, 광주아이온(AI-ON) 등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히 공유해 시교육청의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는 세계적인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수가 됐다.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 등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광주교육의 미래를 미리 살펴볼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인 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간다움과 미래 다움을 기르는 광주교육을 펼칠 것"이 라며 "앞으로 광주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역인학생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성 장할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조성과 디지 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이기자

### 지스트 고령친화센터, 호남권 유일 지원사업 선정

#### 내년까지 3억4천만원 지원받아…제품 사용성 평가 등 수행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는 19일 "보건복지부 산 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권 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원 사업 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차로 지정된 성남, 대구, 부산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 센터 지정으로, 호남권에서는 지스트 고 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중앙 정부-지자체 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 권역별로 고령친화제품 기술을 지원 하는 거점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거점기관에서는 고령친화우수제품 (S마크) 지정 여부에 반영되는 사용성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령친화제품을 개발하는 기 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스트 고령친 화산업지원센터는 2024년까지 총 3억4 천만원(국비 2억원·민자 1억4천만원) 의 사업비를 배정받으며 ▲고령친화제 품 사용성 평가 ▲리빙랩 기반 기술 지 원 ▲고령친화기업 대상 교육 및 세미 나 개최 ▲고령친화제품의 체험 홍보 관운영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또는 글로벌시 장 진출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하는 고령친화기업을 집중 지원해 인 증 획득, 품질 강화, 글로벌 역량 확보 를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스트 고령친 화산업지원센터가 공인 사용성 평가 전문 특화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지 역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인증 받기 위해 타지역 기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스트 고령친화산 업지원센터는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라이프케어로봇 및 코스메디 케어 산업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 서 평가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어 앞으 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오창명 센터장은 "이번 권역별 고령 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 고령친화산업을 활 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며 "광주시 민선 8기 전략산업인 메디 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첨단기술 실 증 도시 조성에 발맞춰 지역 내 고령친 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 전남대, 대학본부 석면철거 등 리모델링 공사

전남대학교가 석면 철거 등 대학본부 리모델링에 나서면서 입주 부서들이 학 내로 분산 이동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대는 19일 "20일부터 12월까지 대학본부 건물 내 석면 철거공사 및 화 장실 개선 등 대학본부 리모델링 공사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대학본부 건물은 지난 1997년 완공된 이래 26년이 지나 전체적으로 노 후화가 심각한 데다 사무실과 화장실 등 에 석면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리모델 링필요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입주 부서들은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순차적으로 민주마루, 창조관, 농생대, 도서관 별관 열람실 등으로 분산이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10여개 부서는 도서관 별관 3층 4열람실과 4층 7-9열람실, 휴게실 등으로 이동하게 돼 이곳 이용이 제한된다.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종합서비 스센터는 지금처럼 대학본부 1층에서 정상 운영된다. /김다이기자

### 동강대 '와인 소믈리에' 2년 연속 배출

동강대학교가 국내 최고 권위의 소믈 리에 시험에서 2년 연속 합격자를 배출 하며 와인 교육기관의 명성을 입증했다.

19일 동강대 평생교육원에 따르면 최 근 (사)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주 관한 와인소믈리에 인터미디에이트(중 급과정)시험에서 김태홍씨가합격했다.

소믈리에는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 식으로 포도주를 관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전문가다.

이번 인터미디에이트 시험은 국내

최고 권위의 소믈리에 시험이자 세계 최고의 소믈리에 협회인 ASI (Associa tion de la Sommellerie Internationale) 가 인정한 자격증 테스트다.

필기시험을 거쳐 와인의 성격, 블라 인드 테스트, 와인과 요리의 조합을 살 피는 마리아주, 대고객서비스 응대 등 의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1 기생 6명이 모두 시험을 통과해 유일하 게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김다이 기자

+



